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943

JCCT 2024-5-108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이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 Self-Leadership and Caring-character on Nursing Practice Readiness among Nursing Students

장희정*, 모문희**

Hee-jung Jang*, Moon-hee Mo**

요약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 인성이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2개 지역의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이 있는 4학년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분산분석, Scheffe 사후검증, Pearson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인성($\beta=0.72$, $p<0.001$)으로 변수 설명력은 51.3%였다($F=189.41$, $p<0.001$). 이상의 결과 돌봄인성이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어 :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crease the practical preparation of nursing students by identifying how their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caring character affect their practical preparation. This study targeted 182 fourth-year students with at least one year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ttending nursing departments at four universities in two regions from April 10 to May 12, 202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3.0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 affecting the practical preparation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caring personality ($\beta=0.72$, $p<0.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variables was 51.3%($F=189.41$, $p<0.001$). The results showed that caring personality had an effect on practical readiness. Therefore, w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related to caring character in order to increase the practical prepara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 Self-Leadership, Caring-Character, Nursing Practice Readines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건 의료환경은 고령인구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및 질병양상의 다양한 변화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다[1]. 이에 보건 의료 환경의 변화를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의료인을 요구하고 있다[2]. 이러한 임상현장의 요구 수준

*정희원,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9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10일

Received: March 19, 2024 / Revised: April 25, 2024

Accepted: May 10, 2024

**Corresponding Author: mhmo1@ync.ac.kr

Dep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Korea

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학생이 실무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3].

실무준비도는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전문직 간호사들의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4, 5].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무준비도가 잘 성취된 상태로 임상 현장에 나아간다면 교육과 실무의 괴리로 인한 현실충격 없이 간호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부정응으로 인한 소진을 줄일 수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6, 7].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무준비도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실무준비도 함양을 위해서는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사료된다.

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8]. 급변하는 병원환경에서 간호조직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환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전문직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으로 사료된다[9]. 전문직관은 임상 간호사에게 실무적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간호대학생에게는 전공 교과목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며, 대학생 시절에 형성된 전문직관이 결국 임상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10].

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는 간호조직은 전문성 영역 확대가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의 리더십 역량이 필수적 요소로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교육과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11-13].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결국 간호대학생의 돌봄 인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제 임상 실무현장에서의 간호관리자가 일반간호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요구하는 요인으로써 바람직한 임상간호인성 역량 강화와 전문직관의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14].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예비간호사로서 인성교육이 더욱 중요하다[15]. 돌봄인성은 최근 간호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업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성찰 없이 높은 취업률과 직업 안정성에 대한 선호로 간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속에서 간호사로서 인성적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 17].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실무준비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개념분석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 인성과 실무준비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없었다[3, 18].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 인성이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 인성이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이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개 지역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임상실습 경험이 최소 1년(2학기) 이상이 있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9개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응답률 미비 등 탈락률 10%를 고려한 결과 182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탈락한 자료가 없어 182명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전문직관

Yeun 등이 개발하고 간호전문직관(Korean Nursing Professional Value, K-NPV)를 사용하였다[19]. 본 도구는 총 29문항이며, 전문적 자아개념 9문항, 사회적 인식 8문항, 간호의 전문성 5문항, 간호실무 역할 4문항, 간호의 독자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확고하게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2이었다.

2) 셀프리더십

Manz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셀프리더십 도구를 Kim이 번역하여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도구를 사용하였다[20, 21]. 본 도구는 18문항이며 자기 기대의 3문항, 리허설의 3문항, 목표설정의 3문항, 자기보상의 3문항, 자기비판의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4이었고, Kim [21]의 연구 Cronbach's α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7이었다.

3) 돌봄인성

Kim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돌봄인성 도구를 사용하였다[16]. 본 도구는 총 51문항이며, 환자존중 15문항, 공감 9문항, 성실 8문항, 용기 6문항, 헌신 3문항, 전문직 태도 4문항, 전문직 윤리 3문항, 정체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인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값은 .97이었다.

4) 실무준비도

Kim이 개발한 실무준비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22]. 이 도구는 임상적 판단과 간호수행 16문항, 전문적 가치와 태도 8문항, 환자 중심적 태도 5문항, 자기조절 3문항, 협력적 대인관계 3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6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와 연구의 윤리적 절차를 위해 Y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IRB NO: 2-700156-N-01-A-2022-010). 자료수집은 2개 지역의 4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최소 1년 이상 임상실습을 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온라인 설명에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설문 진행 중 자율적 중도 탈락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연구 관련 문의 시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술한 설명문을 온라인상 화면 창에서 열람하도록 하였고, 동의를 체크한 경우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응답 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총 182명이 응답하였고, 모두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는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 159명(57.4%), 남학생 23명(12.6%)이었고, 연령은 21-22세 119명(65.4%), 23-24세 31명(17.0%), 25세 이상 32명(17.6%)이었으며 평균은 23.1세이었다. 거주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 112명(61.5%), 기타 70명(38.5%)이었고,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7명(58.8%)로 가장 많았다. 적성과 취미라고 답한 경우 41명(22.5%), 기타 34명(18.7%) 순이었다. 간호학 전공만

족도는 보통 86명(47.3%)로 가장 많았고, 만족 79명(43.4%), 불만족 17명(9.3%) 순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94명(51.6%), 만족 56명(30.8%), 불만족 32명(17.6%)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	23	12.6	
	Female	159	87.4	
Age (year)	21-22	119	65.4	23.1±4.2
	23-24	31	17.0	
	≥25	32	17.6	
Residence	Stay with family	112	61.5	
	Others	70	38.5	
Reason to nursing major	High employment rate	107	58.8	
	Aptitude & interest	41	22.5	
	Others	34	18.7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Satisfied	79	43.4	
	Moderate	86	47.3	
	Dissatisfied	17	9.3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56	30.8	
	Moderate	94	51.6	
	Dissatisfied	32	17.6	

2. 대상자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3.82점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부 요인중 ‘간호실무 역할’이 4.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간호의 전문성’ 4.09점, ‘전문적 자아개념’ 4.03점, ‘사회적 인식’ 3.42점, ‘간호의 독자성’ 3.32점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은 3.87점이었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자기보상’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허설’ 4.11점, ‘자기기대’ 3.96점, ‘건설적 사고’ 3.93점, ‘목표설정’ 3.74점, ‘자기비판’ 3.64점 순이었다.

돌봄인성은 4.38점이었다. 돌봄인성의 하위요인 중 ‘환자존중’이 4.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직 윤리’ 4.50점, ‘공감’ 4.36점, ‘성실’ 4.34점, ‘전문직 태도’ 4.33점, ‘용기’ 4.31점, ‘정체성’ 4.17점, ‘헌신’ 3.93 순이었다.

실무준비도는 3.51점이었다. 실무준비도의 하부 영역에서 ‘환자 중심적 태도’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조절’ 3.74점, ‘협력적 대인관계’ 3.74점, ‘임상적 판단과 간호

수행’ 3.39점, ‘전문적 가치와 태도’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
Table 2. Level of study variables

(N=182)

Variables	Mean±SD	Min-Max	Possible Range
Nursing Professionalism	3.82±0.58	1.41-4.90	1-5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03±0.75	1.00-5.00	
Social awareness	3.42±0.78	1.00-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09±0.67	1.00-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4.17±0.76	1.00-5.00	
Originality of nursing	3.32±0.96	1.00-5.00	
Self-Leadership	3.87±0.60	2.22-5.00	1-5
Self-expectation	3.96±0.95	1.00-5.00	
Rehearsal	4.11±0.92	1.00-5.00	
Goal setting	3.74±0.89	1.00-5.00	
Self-compensation	4.13±0.77	1.00-5.00	
Self-criticism	3.64±0.89	1.00-5.00	
Constructive thinking	3.93±0.87	1.33-5.00	
Caring-character	4.38±0.49	2.51-5.00	1-5
Patient respect	4.57±0.52	2.27-5.00	
Compassion	4.36±0.58	2.56-5.00	
Sincerity	4.34±0.58	2.50-5.00	
Courage	4.31±0.59	2.50-5.00	
Commitment	3.93±0.80	1.67-5.00	
Professional attitude	4.33±0.68	2.00-5.00	
Professional ethics	4.50±0.53	2.67-5.00	
Identity	4.17±0.77	1.67-5.00	
Nursing Practice Readiness	3.51±0.43	2.06-4.00	1-4
Clinical judgment and nursing performance	3.39±0.50	2.00-4.00	
Professional values and attitudes	3.39±0.56	1.75-4.00	
Patient-oriented attitude	3.76±0.40	2.00-4.00	
Self-regulation	3.74±0.41	2.00-4.00	
Coopera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3.74±0.44	2.00-4.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무준비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실무준비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와(F=5.14, p=.046) 임상실습만족도(F=5.76,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특성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실무준비도는 전공만족도에서 만족한 경우(3.57±0.38)가 불만족한 경우(3.29±0.3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만족한 경우(3.62±0.36)가 보통(3.47±0.38), 불만족 경우

(3.36±0.5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무준비도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ractice read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Variables	Categories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3.59±0.34	0.99(.322)
	Female	3.49±0.44	
Age (year)	21-22	3.53±0.43	2.11(.112)
	23-24	3.57±0.30	
	≥25	3.37±0.50	
Residence	Stay with family	3.47±0.43	-1.17(.243)
	Others	3.55±0.42	
Reason to nursing major	High employment rate	3.52±0.41	1.26(.287)
	Aptitude and Interest	3.56±0.42	
	Others	3.41±0.43	
Satisfaction in nursing major	a. Satisfied	3.57±0.38	3.14(.046) a>c
	b. Moderate	3.49±0.41	
	c. Dissatisfied	3.29±0.3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 Satisfied	3.65±0.36	5.76(.004) a>b,c
	b. Moderate	3.47±0.38	
	c. Dissatisfied	3.36±0.57	

4. 대상자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와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실무준비도와 전문직관($r=0.45, p<0.001$), 실무준비도와 셀프리더십($r=0.51, p<0.001$), 실무준비도와 돌봄인성($r=0.72, p<0.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r=0.53, p<0.001$), 전문직과 돌봄인성($r=0.56, p<0.001$), 셀프리더십과 돌봄인성($r=0.62, p<0.001$)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표 4. 대상자의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 실무준비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82)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	Self-Leadership	Caring-character	Nursing Practice Readiness
	r(p)	r(p)	r(p)	r(p)
Nursing Professional	1	0.53(<0.001)	0.56(<0.001)	0.45(<0.001)
Self-Leadership		1	0.62(<0.001)	0.51(<0.001)
Caring-character			1	0.72(<0.001)
Nursing Practice Readiness				1

5. 대상자의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일반적 특성 중 실무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수인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고,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인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 Watson 통계량은 1.943으로 2에 근접해 인접한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차 한계는 0.61~0.95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4~1.63으로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189.41, p<0.001$), 돌봄인성($\beta=0.72, p<0.001$)이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51.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표 5.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actice Readiness

(N=182)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 R ²	F(p)
(constants)	0.76	0.20		3.76	<0.001	0.513	0.510	189.41 (<0.001)
Caring-character	0.63	0.50	0.72	13.76	<0.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관, 셀프리더십, 돌봄 인성이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본 연구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82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Yang & Jung의 연구에서 3.62점, Yemo의 연구에서는 3.67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고, Hwang & Shin의 연구 3.91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23-25]. Kang 등의 남학생 3.79점, 여학생 3.82점, Mun & Hwang의 연구에서는 3.7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26, 27].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요인 중 대부분 연구에서 ‘간호실무 역할’과 ‘간호전문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은 낮은 것으로 보아 간호대학생이 실제 임상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임상실습기간 중 느꼈던 것으로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간호를 전문직으로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23-25]. 따라서 대학에서는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간호대학생에게 제공하고, 간호사가 사회적으로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호의 전문적 직무 수행 인정에 대한 간호법 제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치적 노력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어야 하겠다.

셀프리더십 정도는 본 연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자기보상’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o의 연구에서 3.53점, Bang의 연구에서 3.55점, Choi의 연구에서 3.74점으로 선행연구 모두 3.5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28-30].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정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며, 학습과 경험을 통하여 개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셀프리더십 점수가 높았던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의 역량이 일부 함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31, 32].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수업이나 문제해결 수업 등의 운영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33].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38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4.06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34]. 돌봄인성의 하부요인 중 ‘환자존중’이 4.57점으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환자존중’이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16, 34, 35]. ‘환자 존중’이 여러 연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간호를 제공할 때 인간을 존중하는 간호사의 가치관과 됨됨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예의와 예절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6].

실무준비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고, 실무준비도의 하부 영역에서 ‘환자 중심적 태도’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 가치와 태도’는 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준비도를 파악한 Kim 연구에서 3.23점,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연구에서는 평균 3.18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낮았다[36, 37].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의 연구에서 2.92점, Oh의

연구에서 3.06점, Jang의 연구에서 3.00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소 높았다[38-4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투입되어 독립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실습 관련 이해도와 학습몰입, 수행자신감 등이 높아져 간호실무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36].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 때 실무준비도가 높았던 신규간호사일지라도 이론과 실제와의 차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감 등으로 자신감이 저하된다면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주어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41]. 하위영역 중 ‘환자 중심적 태도’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6, 39, 4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준비도를 파악한 Kim 연구에서도 ‘전문적 가치와 태도’ 문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전문적 가치와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36-38]. 이는 임상간호업무에 대한 미숙함으로 전문가로서 자신감 저하와 자기효능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업무수행 시 경력간호사의 격려와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간호실무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 4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실무준비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간호학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36].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무준비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에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임상실습을 제공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돌봄인성이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 영향요인 정도를 51.3% 설명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예비 직업인으로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와

관련하여 돌봄인성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돌봄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15].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돌봄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변화하는 임상 현장에 따라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임상 현장을 최대한 유사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돌봄 인성이 실무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실무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돌봄 인성과 관련된 전략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 인성을 향상시키고, 단계별 학년별 수준에 따른 통합 맞춤형 돌봄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으로 간호대학생의 돌봄인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References

- [1] H. C. Kang, "The 2023 Outlook for Health Care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 315, pp. 7-23, January 2023. DOI: <https://doi.org/10.23062/2023.01.2>
- [2] S. J. Lee, Y. M. Kim and E. G. Oh, "Korea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al Strategies as Perceived by Nursing Educators and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3, No. 4, pp. 360-375, 2021. DOI: <https://doi.org/10.7475/kjan.2021.33.4.360>
- [3] M. Noeman, M. R. Louela and P. Dawn, H. Lisa-Anne, D. Christopher, "Practice readiness of new nursing graduates: A concept analysi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37, pp. 68-74, 2019.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9.04.009>
- [4] R. Janet Kay, *Perceived readiness for practice of seni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Ph.D dissertation, Kansas University, Lawrence(Kansas), America, pp. 1-243, 2010.
- [5] J. S. Kim and J. H. Park,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on the Effect for Self-Debriefing Experience to Nursing Practice Readiness on the Job Performance New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10, pp. 185-192, 2022. DOI: <http://doi.org/10.5762/KAIS.2022.23.10.185>
- [6] H. O. Kim, M. H. Nam and Y. N. Kim, "Influence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and resilience on the nursing performance among new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8, No. 4, pp. 352-360, 2022.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22.28.4.352>
- [7] K. S. Bang, J. H. Kang and E. S. Nam, M. Y. Hyun, E. Y. Suh, et al., "Nursing students' confidence in clinical competency and job readin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7, No. 4, pp. 402-411, 202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1.27.4.402>
- [8] E. J. Yeun, Y. M. Kwon and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9] S. H. Kim and H. O. Park, "Effects of ego-resili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pathy on clinic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 101-110, May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01>
- [10] E. H. Hwang and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1, pp. 97-108, 2017.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7.31.1.97>
- [11] H. Y. Kim, M. S. Kim and H. C. Jeong, "Effect of smart PBL on meta-cogni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practic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aki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applying flipped lear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8, No. 1, pp. 57-67, 2020.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20.8.1.57>
- [12] J. D. Houghton and C. P. Neck, "The revised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17, No. 7, pp. 672-691, 2002.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210450484>
- [13] C. C. Manz and H. P. Sims Jr, "The new super 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 themselves, Berrett - Koehler, 2001, pp. 1-272
- [14] H. J. Yang,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Nurses' Character Using the Delphi Method in Hospital Nursing Management Staf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0, No. 6, pp. 1413-1428,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6.105>
- [15] M. H. Nam and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4, No. 4, pp. 298-306,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 [16] M.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Assessing Caring-character of Nursing Students*, Ph.D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pp. 46, 166-169, 2018.
- [17] J. 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2013.
- [18] T. W. Lee, Y. J. Ji and Y. S. Yo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Readiness for Practice Survey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52, No. 6, pp. 564, 2022. DOI:<https://doi.org/10.4040/jkan.22032>
- [19] E. J. Yeun, Y. M. Kwon and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0] C. C. Manz,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1983.
- [21]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p. 1-83, 2002.
- [22] J. H. Kim, *Development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scale for new graduate nurse*,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 1-213, 2020.
- [23] S. K. Yang and M. R. Jung, "Influences of Academic-burnout,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1, pp. 613-629,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11.613>
- [24]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4, pp. 320-330,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20>
- [25] E. H. Hwang and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1, pp. 97-108, April 2017.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7.31.1.97>
- [26] K. J. Kang, S. J. Yu, H. M. Seo, M. S. Park, M. Yu,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491-501, November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491>
- [27] M. Y. Mun and S. Y. Hwang, "Impact of Character Strengths on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8, pp. 403-418, 2016. UCI: G704-001586.2016.16.8.009
- [28] J. Y. No,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Grit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Business Convergence*, Vol. 9, No. 1, pp. 117-121, February, 2024. DOI: <http://dx.doi.org/10.31152/JB.2024.02.9.1.117>
- [29] S. Y. Ba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Humanity, and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6, pp. 409-418,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6.409>
- [30] S. K. Choi, "Effect of Learning Attitude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8 No. 6, pp. 103-111, June 2023. DOI: <https://doi.org/10.9708/jksci.2023.28.06.103>
- [31] C. P. Neck, and J. D. Houghton,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 21, No 4, pp. 270-295. June 2006. DOI: <https://doi.org/10.1108/02683940610663097>
- [32] D. R. Kim, and H. N. Lim, and J. I. Kim., "Factors Influencing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3, pp. 369-377, 2020.
- [33] E. K. Byun, "Effect of Self-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10, No. 2, pp. 159-166, March

2024.

Analysis Society, pp. 279-279, January 2023.

- [34] M. H. Cho and W. G. Kim, "The Effect of Caring-character,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1, pp. 329-339, 2021.
- [35] Y. E. Chun and H. Y. Hw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aring character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10, No. 1, pp. 43-54, March 2020.
- [36] M. S. Kim, *Influence of alternative clinical practicum and self- efficiency of clinical practice on nursing practice readiness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pp. 31-34, 2022.
- [37] S. Kim,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Information Core Competencie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Nursing Practice Readiness*, Master's thesis, Honam University, pp.34-39, 2023.
- [38] M. Y. Kim,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practice readiness of new graduat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9, No. 4, pp. 395-404, 202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4.395>
- [39] H. Y. Oh, *The Effects of Nursing Practice Readiness and Clinical Nursing Character on the Retention Intention of New Nurses Experienced Non-Face-To-Face Practice Education*,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pp. 24-50, 2022.
- [40] K. Y. Jang, *Effects of Perceived Preceptor's Empathy and Nursing Practice Readiness on Field Adaptation in New Nurses*, Master's thesis, Nambu University, pp. 17-33, 2022.
- [41] S. H. Kim, *Influence of New Nurse's Reality Shock and Resilience on Adaptation and Retention Intention*,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pp. 1-3, 2024.
- [42] J. H. Kim, *Influence of New Graduate Nurses' Nursing Practice Readiness Resilience and Preceptors' Teaching Behavior on Turnover Intention*,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pp. 16-35, 2024.
- [43] J. H. Kim and K. M. Le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ursing practice read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